

소실문화재 공동복원 첫 사례

금강산 신계사복원 의미와 전망

문화교류로 민족동질성 회복 기대

금강산 지역의 사찰 복원 계획은 그간 북한지역 사찰복원에 관심을 가져 온 불교계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신계사 복원을 시작으로 추진될 금강산 사찰복원 불사는 남북불교 관계 향상 등 적잖은 시너지 효과도 얻을 전망이다.

의미 금강산 지역 사찰복원은 북한 지역의 소실 문화재를 남북이 공동으로 복원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사찰복원 사업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회복과 남북불교계의 관계 향상도 기대되고 있다. 또 신계사와 유점사 장안사 복원에 이어 묘향산 등지의 관광개발 예정 지역에 대한 사찰 복원 교두보 마련의 계기도 될 것이라 전망된다. 조국 평화통일불교협의회 회장 법타스님은 "북한내에 복원 가능한 사찰은 104개에 이르고 있어 금강산 사찰 복원은 장기적으로 이들 104개 사찰 복원의 단초가 될 것"이라 말했다.

금강산 사찰 복원은 남북 교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발해지는데 따른 정치 군사적 교류의 폭도 '햇볕정책'과 맞물려 매끄럽

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 현대가 개발의 산과역을 맡아 신계사를 우선적으로 복원하는 것은 금강산 관광코스에 신계사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계사 복원은 첫발을 떤 순간부터 금강산 관광의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강산 관광개발을 향한 자연스런 전법의 계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이 불교계의 전망이다.

배경과 전망 북측과 신계사 등의 복원 사업을 논의 하고 있는 (주)아산의 김교중 부사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북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불교계도 적극적인 입장이라서 사업의 추진에 무리는 없을 것"이라 밝혔다. 김부사장은 또 "이 사업은 관광개발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족 문화유산을 복원해 후손에 전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측은 2월 22일자로 금강산 개발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 파괴를 우려해 온 조계종에 보낸 공문에서 이 사업을 간접적으로 비추었다.

불교계도 그간 평불협을 중심으로 북한 사찰의 복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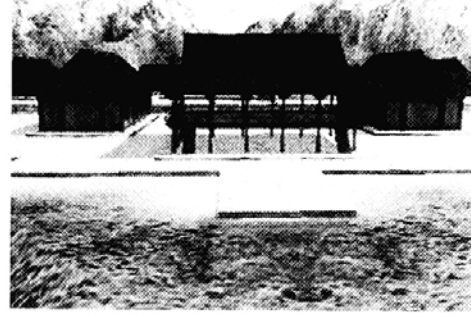
평불협은 98년 3월 북한으로부터 금강산 개발을 위임받은 금강산국제그룹과 '금강산 문화재 복원을 위한 합의서'를 도출해 내고 6월에는 신계사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또 9월에 신계사복원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북측의 백두산건축연구원으로부터 신계사 복원 설계도까지 확보해 둔 상태다.

평불협은 그간 현대측과 신계사 등의 복원을 꾸준히 교섭해 왔으며 19일에 평불협과 현대측이 만나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을 계획이다. 또 평불협은 4월 백두산건축연구원과 다시 만나 신계사 복원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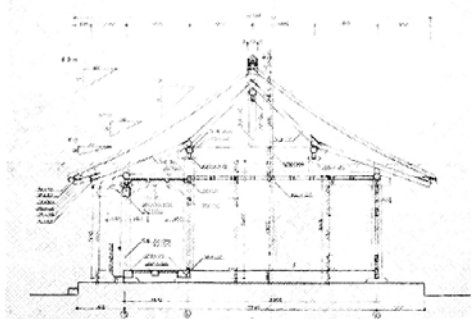
금강산 지역 사찰 복원 사업은 현대와 불교계, 북측의 아세아태평양위원회가 사업의 주체로 구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대측은 "불교계의 사업 파트너를 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혀 그간 논의와 관계협과의 공동추진 혹은 조계종, 종단협과도 협의할 가능성을 비쳤다. 조계종과 종단협도 그간 이사회 등 각종 회의에서 북한문화재 조사 및 복원 사업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 온 만큼 현대측의 제안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의 첫 기적소리가 국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듯 신계사 복원의 첫 말소리가 불자와 국민들의 가슴에 박힌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임연태 기자(ytlm@buddhopia.com)



◇영상으로 복원한 신계사 전경 (사진제공KBS).



◇북한백두산건축연구원이 작성한 신계사 법당 복원설계도.

“검소한 승복을 입자”

조계종 교무국장회의 가사원 설립 등 의견

조계종 교육원(원장 임면) 주재로 10일 열린 본사교무국장회의에서 시중에 유통중인 고가 승복을 퇴출시키고, 무소유의 출가정신에 부합하는 검소한 승복 입기가 재기돼 주목을 끈다.

사미(니)복 단체구입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이날 회의에서 교육원 교육부장 계성스님은 사미복의 규격통일과 적정 가격유지를 위해 사미복의 단체제작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참석 스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단순한 사미(니)복문제 뿐 아니라 승가 의복 제작과 유통 전반에 대한 반성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또한 스님들은 고가의 승복문제는 승단 내부에서 무소유정신을 절실히 실천하지 못하는 등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된 부분은 종단차원에서 교육원에 '가사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대목. 승복의 통일을 위한 연구와 고가 승복 난립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사원 설립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가

사원을 통해 행자복, 사미복, 장삼, 가사 등 의복을 일괄적으로 통일 제작 지급하고, 승려관리와 위계질서 확립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당장 시중 승복점들의 피해와 업체선정과정에서의 편중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교육원이 전국 승복점의 표본조사를 통한 재질별 승복가격 표준안을 마련해 이를 참고로 지역 사찰에서 적합한 업체를 통해 승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교육부장 계성스님은 "종교 성직자의 의복이 시중에 버젓이 나와 그것도 고가로 팔리고 있다는 것은 무소유 정신을 실천하는 수행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면서 "사미(니)복 정착부터 시작해 승가단체가 관심을 갖고 의복 전반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표본조사를 통해 점차적으로 고가 승복을 퇴출시키는 등 종단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이날 회의는 부처님 출가일을 앞두고 출가정신을 다스리던 퇴계기에 충분한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opia.com)

'포니 정'은 정주영회장의 친동생 정세영회장의 애칭이다. 애칭이 대변하듯 그는 현대자동차에서 32년간 몸바쳐 일했다.

인연이란 때가 있는법. 그래서 시절인연이라고 하지 않는가. 자동차 업계의 대부 정세영회장은 차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버리고 71세에 건설선으로 다시 새 출발점에 섰다. 42년전 미국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고 귀국한 29세의 청년 정세영은 대학강단에 서는 꿈을 꾸었다.

이때 형은 동생에게 회사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한시적으로 도움 생 각이었으나 정세영은 공 사현장을 누

비는 '현맨'이 되었다. 10년후 형은 또 동생을 불렀다.

"자동차 사업을 해야겠는데 도와 줄수 있겠느냐"

"형님 뜻대로 하겠습디다" 정세영은 "자동차에 미쳤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포니 개발에 성공했고,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형은 말했다. "착한 세영이가 고생을 많이해 머리털이 많이 빠졌다."

올봄 형은 다시 동생을 불렀다. "이젠 내가 그만 실패가 된것 같

다. 물러나 줘야겠다."

32년전 처럼 동생은 형님의 결정에 승복했다. 주주총회때 왕회장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세력확대를 시도한 것이 최근이라고 하나 정세영회장은 형제간의 불화설을 일축했다.

"갈등설이 왜 나왔지 모르겠다. 큰 형님 덕분에 가장 화려한 직장생활을 했다. 큰 형님의 배려에 감사한다. 행복한 마음으로 현대자동차를 떠난다."

그러나 교별사를 읽으며 끝내 눈물을 보였던 정세영회장. 그는 지난 8일 30년간 써온 낡은 책상을 새 집무실로 옮기고 건설맨으로 다시 복귀했다.

"친정에 돌아온 기분이다. 현대산업개발을 경쟁력있는 종합건설회사로 발전시켜 또 한번 멋진 회사로 만들어 보겠다. 형님이 잘해 보라고 격려해 줬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70노장 정세영회장의 다시 시작하는 모습과 형제에는 무언의 교훈이다. "친척은 서로 이롭게하며 협력해야한다. 친척은 공격하고 가까이 하면 그들은 평안하여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다." <장야함경> <육방예경>에 있는 가르침이다.

이은자 기자

조계종-선학원 '다시 대화'

문제해결 필요성 양측 공감 인사-재산-운영권 이견 여전

조계종이 고산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새롭게 출발한 가운데 선학원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94년 이후 본격화된 '선학원 문제'가 이번에는 해결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 법안대책특위 위원장 영담스님과 선학원 실무대책위원장 성문스님은 11일 오후 조계사 인근에서 만나 양측의 요구사항을 교환했다.

■조계종 요구사항 조계종 법안대책위는 8일 회의에서 마련한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조계종의 요구사항은 95년 마련된 선학원의 독자성 보장을 위한 별도(특별)교구화 인정 △총회위원의 정수 3인 배정 △선학원에서 도제교육에 대한 분담금의무 이행 등 6개항이다. 또 최근 총무원도 △장관 변경:제1조에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 명기. 제2조 목적에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를 봉대하여 삼습, 제6조 임원 선출에 대한불교조계종 재적승려 중에서 선출하며 선출된 임원은 조계종 총무원

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삼습 △선학원 설립취지와 목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현재 선학원에 등록되어 있는 타종단 승려 및 무속인들의 분원은 재산을 환원시키고 선학원에서 탈퇴 시키도록 한다. △이후 선학원은 신규사찰 등록을 받지 않도록 한다 등 6개항을 법안대책위에 제출했다.

■선학원 요구사항 이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11일 선학원측 성문스님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사항들이 많다"며 작년 8월 조계종에 제출했으나 아직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한 공동합의서 초안의 범위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 입장을 보였다. 당시 합의서 초안은 △대한불교조계종과 재단법인 선학원은 한부리임을 공감하며 동질성 회복을 위해 지금까지의 갈등을 완전히 종식하고 향후 교계의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재단장 제3조 목적조항에 '조계종 종지를 봉대한다'를 삽입한다. 단, 조계종은 이 조항에 대한 중언 중법



◇조계종 법안 대책 특위 위원장 영담스님(우측)과 선학원 사무이사 성문스님이 11일 만나 조계종과 선학원 문제를 논의했다.

의 확대해석을 할 수 없으며 선학원의 인사권 재산권 운영 관리권 등 법인고유의 일체 권한을 침해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등 5개항.

■전망 조계종과 선학원 대화 재개는 어떻게든 선학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양측의 인식이 팽배해 진 것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노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간 양측의 입장차이를 좁히는데 걸림돌이 됐던 정관상의 명칭, 목적, 선출 부분에 대한 양측의 양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교구 인정 교육분담금의 무이행, 분원장 인사권 및 사찰 운영에 따른 사자상승의 보장 등은 선학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항. 결국 양측이

얼마만큼의 양보와 대등적 타협의지를 갖느냐에 따라 선학원 문제의 길은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다는 게 주변의 분석이다. 종단 안팎에서는 조계종과 선학원의 현실적인 입장차이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신뢰의 문제다. 선학원에 등록된 대다수 분원장들이 조계종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상의 권익, 주지 승계의 사자상승 등에 대해 골 깊은 불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 역시 선학원에 등록된 분원 중에는 타종단 소속스님과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무속인이 포함돼 있다는데 골치 많은 시선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정서상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 한 조계종과 선학원 문제는 제도적인 절차만으로 풀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연태 기자

임선

재연 스님 행자 일기

일찍이 삶에 선운사로 출가한 재연 스님은 이후 전국 각지의 선암에서 수도했으며 1985년 근원공공을 연구하기 위해 인도 푸나 대학에 유학하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지난해 귀국한 스님은 현재 격포 앞 바다에 떠 있는 섬 위에서도 홀로 정진하고 있다. 폭설과 비바람으로 자주 갇히기 힘든 섬의 한 작은 암자에서 바닷바람 맞으며 새벽 예불을 드리고, 손수 밥짓고 빨래하고 공부하고 참선하고 있다.

종소리를 멀리 내보내기 위해서
중은 더 아파야 한다



법정 스님의 산 내음 그윽한 글처럼, 『임선』에는 선운사의 자옥한 동백꽃과 어우러진 달속한 향내가 있다. —조선일보

이 책은 세파에 시달리며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갈로수 같은 잔잔한 감동을 전해준다. —세계일보

스승과 선배 스님들, 도반과 절집 사람들, 선방과 저잣거리를 번갈아 등장시키며 서술 푸른 수행자의 내면과 구체적인 일상을 정갈한 문체로 담아내고 있다. —한국일보

수컷구멍에 떨어진 뱀똥을 하나하나 주워먹는 노스님, 우락부락 파충우들이면서도 뜻밖에 섬세한 광택 출신 스님, 빨래하는 행자의 모습을 담은 그림에 입술 도장을 찍어 보낸 처자 등 행자 시절의 이모저모가 깔끔한 문장으로 아귀자귀하게 갈무리되어 있다. —한겨레신문

『임선』이란 한 엄숙한 통과의례의 과정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 과정에 있었던 인간사의 회로예락을 가감 없이 전하고 있는 이 책은 독도의 들고남이 어디서 오는지를 자연스레 전해주고 있다. —문화일보

“숲속에서도 저잣거리에서도 수행자는 늘 홀로 선다.

수행자의 양식은 사무처는 외로움이다”

방랑자 재연 스님이 바람 속에서 건져올린 生의 얼굴들

방랑 시작

재연 스님 산문집

이 책에는 더러는 눈물이 나올 만큼 애처로운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배꼽을 잡고 웃지 않으면 배기지 못할 재미난 이야기도 부지기수다. 스님의 이야기 보따리는 넓고도 깊다. 그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삶의 속내를 뚝뚝하게 짚어내고 있다. —인도현(사인)

자유인의 활달한 발걸음을 만나는 길

스님의 맨발

한승연의 연승 이야기

부처에서부터 '걸어다니는 수미산' 덕담 스님에 이르기까지 '대각(大覺)'의 절기를 흠뻑으며 산경(山景)에 취해 있는 스님들의 족적과 일화들 흥미롭게 개낸다. —홍이일보

고승들의 족적과 선지식을 찾아 삼과 죽음, 애욕과 해탈에 관한 깨달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예사롭지 않은 이야기들. —세계일보